

2011년도 예술전용공간(운영)지원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문학창작집필실운영지원사업 심사평(문학분야)

- 일시 : 2011. 1. 20(목) 10:00~12: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유종호,신대철,김인환,이창윤

공간운영계획,계획이행의 실현가능성,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1차 기준으로 하고 운영의 공개성,심사절차의 공정성을 2차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 결과 토지문화관과 만해마을은 신청액대로 배정하고 부악문화관과 글을 낚는 집은 신청액에 차감하여 배정하는데 전원 합의하였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1년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 심의총평

- 일시 : 2011. 01. 20.(목) 10:00~17: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최병식, 김미진, 강승완, 김찬동(임창섭 위원 불참)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은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많은 단체들이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일회성 창작활동이나 전시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사립미술관의 경우도 우수한 기획전보다는 일상적인 미술관의 전시사업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의 특성상 전시의 질과 우수한 기획의도를 가진 창의적 프로젝트를 우선하였다. 이는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공간에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가장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두 곳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지원금액을 높게 결정하였다. 사업의 특성상 대안적 성격의 비영리 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두 범주의 공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립미술관의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통해 일반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착안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가급적 문화향수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예술전용공간(운영)지원사업 심사평(연극분야)

- 일시 : 2011.1.25(화) 14:00~18: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최치림, 김미혜, 김태훈, 김선욱, 황치준

예술전용공간 운영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28건이 지원신청되어 5인의 책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14건의 지원대상 공간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공간현황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를 실시한 후 심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간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공간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심층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정한 12개 단체는 인터뷰 심의도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전체 신청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참여 여부는 당락과 무관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결과에서도 인터뷰 참여한 공간이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공간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년도에는 491,000,000원의 예산으로 10개 공간을 지원하였는데, 2011년도는 580,000,000원으로 예산이 89,000,000원 증액되었으므로 13개 내외의 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창작공간으로서의 활용도와 연극계에 기여하는 점을 중요 요소로 보았다. 2010년도에 지원 받은 10개 공간 중 7개 공간이 재신청하였으므로,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초 지원 결정 시의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의 공간운영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지원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신규 신청한 21개 공간 중에서도 현재 공간운영을 잘하고 있거나 기대되는 공간에 높은 평가를 하였고, 지역의 안배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2001년도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6건이 재선정되었고, 신규로 8건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건이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이 5건 선정되었다.

금번에 선정된 공간은 2012년까지 2년간 지원하되, 2011년 공간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지원액을 조정하게 된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예술전용공간(운영)지원사업 심사평(무용분야)

- 일 시 : 2011. 1. 20(목) 14:00~16:00
- 장 소 : 예술위원회 3층 접견실
- 심의위원 : 배정혜, 정귀인, 이원국, 문애령, 양한성

이번 2011년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 무용분야는 총 8개 신청사업 중 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고요강에 따라 춤전용 소극장 및 복합공간, 스튜디오 2개 사업유형이 골고루 신청되었으며, 심의단계에서도 무용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장과 스튜디오 연습공간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금회 심의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집행, 성과 단계 즉, 공간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공간운영 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주요 심의기준으로 설정하되, 기존 지원실적이 있는 공간은 최근 공간운영 개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전체 신청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장기 공간운영 전략과 1차년도 사업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였다.

본 사업이 연간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유형 모두 사업취지에 맞도록 연간 지속성 있는 공간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고, 공간운영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과 함께 무용의 창작향수 저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고려하였다. 특히 스튜디오 운영사업은 개인적 연습공간보다는 타 무용가(단체)의 참여도 확산을 통한 소통과 네트워킹, 춤 창작물 생산을 위한 거점 기능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수한 작품의 산실 역할과 동시에 공연으로써 창작자와 대중이 만나는 플랫폼 기능을 염두에 둔 큰 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스튜디오 공간을 엄선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였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공간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강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피력하는 바이며, 선정된 공간 또한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이상으로 분발하여 무용계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예술전용공간임차지원사업 심사평(음악분야)

- 일 시 : 2010. 10. 19(수) 10:00 - 13:00
- 장 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책임심의위원 : 박재은, 김홍수, 최덕식, 김창욱

2011년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음악분야에는 총 6건이 신청되어 4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을 토대로 신청단체가 제출한 공간운영계획서와 제반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제한적으로 인터뷰 심의를 병행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4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신청공간의 창작과 발표 거점공간으로서의 공간운영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중 있게 보았으며 그간의 운영실적과 성과도 참조하였다. 아울러 참여 예술인의 규모나 공간운영에 관한 단체의 운영역량,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감안하였다. 또한 기금지원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공간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해 왔으며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환경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고려 하였다.

2011년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음악) 최종 선정단체는 다음과 같다.

- (주)부암아트 : 부암아트홀 운영 45,000,000원
- 공간울림 : 공간울림 운영 35,000,000원
- 더하우스콘서트 : 더하우스콘서트 공간운영 50,000,000원
- 오픈스튜디오21 : 오픈스튜디오21 공간운영 20,000,000원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예술전용공간(운영)지원사업 심사평(전통예술분야)

- 일 시 : 2011. 01. 20(목) 14:00 - 17:00
- 장 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이창신, 전지영, 채치성, 이정만(강호중위원 불참)

이번 심의는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으로 전통예술분야는 총 1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1차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현장을 점검하지 못한 공간의 경우 현장 인터뷰심사를 거쳐 11건 중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 심의기준은 공간운영 계획의 충실성,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이 공간운영에 현실적으로 적합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인터뷰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와 적극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전년도 지원공간의 경우 전년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추진능력 기획력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4인 및 내부 1인으로 구성, 사전 자료 검토와 심의 당일 일부 신청단체에 대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 당일 현장에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2011년 공간지원에 대한 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책임심의위원들이 공간운영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다년간(2년) 지원사업으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책임심의위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1년도 다원예술매개공간운영지원사업 심의총평

- 일시 : 2011. 01. 21.(금) 14:00~18: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권준원, 박일호, 장미진, 류재수 (김이경 위원 불참)

2011~2012년도 2년간에 걸쳐 지원하게 되는 다원예술매개공간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회는 다원예술·예술일반 분과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였다.

금번 다원예술매개공간운영지원사업에는 총 21건이 신청하였으며 지원신청총액은 975백만원에 달했다.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1차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계획과 이전 성과의 확인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 지원신청서와 세부계획서에 해당하는 공간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단체에서 제출한 관련 실적 자료도 일별하였다.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4대 심사기준과 세부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개별 신청공간의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다원예술매개공간으로서 뚜렷한 미션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차별성 있게 제시하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 상당수의 공간들이 여러 장르의 일차적인 나열이나 병렬적 구성방식에 가까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신청공간들 가운데 예술장르간 융·복합 등 다원예술에 대한 관점이 차별적이고 적극적이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8개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다원적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재지별 분포도 고려하였다. 아무쪼록 선정된 공간들은 다원예술활동의 플랫폼으로서 소기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원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다원예술·문화일반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